

퍼펙트 論述

예술 영역의 중요 주제 더러잡기



박은경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강사

기술 문명의 발달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지금, 사회의 고민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에 있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이 생활 예술이란 이름 아래 광범위한 환영층을 형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논술고사의 주제가 주로 사회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인식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예술 영역이 앞으로 논술고사에서 좀더 비중 있게 출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4학년도 서경대 정시모집 논술고사에서는 예술과 외설 문제를 통해 자유와 책임의 상관 관계를 물었다. 또 2006학년도 성균관대 정시모집 논술고사에서는 '짜퐁' 문화의 문화적 함의를 주제로 다루었으며, 2007학년도 동국대 수시 2학기 논술고사에서는 예술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출제했다.

물론, 사실 학문 자체의 성격만을 놓고 본다면, 예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술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일반 학생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현실과 어느 정도 유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술고사의 취지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인 만큼, 사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제 위주로 학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예술 영역에서 출제 유망한 두 가지 주제를 점검해 본다.

동영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예술과 사회현상의 연관성 주목하라

1. 예술이나, 외설이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작품'이고, 외설은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는 난잡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만으로는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기 어렵다. 고야의 '나체화를 보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설물을 보면서도 성욕과는 관련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 또한 있게 마련이다.

예술과 외설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기준이 시대와 민족,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D. 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1928)은 그 당시 난잡하다는 이유로 금서 목록에 올랐지만, 현재는 여러 문화 작품에 비해 노골적으로 성적 흥분을 조장하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욱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뚜렷하고 객관적인 구별 기준의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 데에는 '음란성'이란 다소 모호해 보이는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작품의 내용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하고, 또 보통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도의(道義) 관념에 반하는 것'이 외설이 된다. 그런데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선량한 성적도의의 관념'의 척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여전히 과제가 남는다. 음란성 여부가 관련된 개개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수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는 과제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

〈판례에 나타난 음란성 판단 기준〉

- ① 법원이 음란성을 판단하되, 보통인 즉 통상의 성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② 음란성의 판단 대상은 문서 전체가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의 음란성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시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체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는 외설성을 판단하는 데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가이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제22조). 다만,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제37조 2항), 법리적 해석으로는 국가가 외설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플라톤은 미와 진리, 정의가 모두 선의 이데아로 귀결된다는 입장 아래 '예술은 선(善)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개인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행위를 형성하는 데 예술이 기여해야 하고,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의 내용은 교훈적이어야 하며 올바르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 작품의 도덕적인 흥결이 문제될 때 국가가 마땅히 관여해야 하며, 외설성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거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질서를 위한 국가의 간섭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예술 작품의 외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의 관여를 마땅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존재한다.

예술 작품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할 위험성이다. 대중 문화를 정치적 선전에 악용했던 파시즘의 예나, 예술 작품의 평가 기준으로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내세운 북한의 사회주의 예술이 그러하다. 결국, 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간섭은 '예술의 종속'이라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술의 본질을 '미적 완성을 위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창작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설성에 대한 판단 역시 국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동기와 해당 작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술의 본질을 '미적 완성을 위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창작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설성에 대한 판단 역시 국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예술가의 창작 동기와 해당 작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진품(眞品)과 아우라(Aura)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2층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직접 감상하는 경우와 시중에서 다 빈치의 화보를 구입하여 모나리자 사진을 감상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나리자를 직접 감상할 때 특별한 감동과 웬지 범접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이는 바로 진품에서 비롯된 아우라 때문이다.

'아우라'란 독일의 철학자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예술 이론으로, 예술 작품에서 흥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를 말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우리가 아우라를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특성이다. 아우라는 원본성, 일회성, 유일성, 진품성을 가진다. 예술 작품을 재생산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웠던 예전 시대에 예술 작품은 원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번 생산하면 끝나며 다시 똑같은 작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결코 같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회성·유일성을 가진다. 더불어 복제된 것과 진품은 확연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아우라는 인간의 경험과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진다. 예술 작품이 속하는 사회와 그 사



진품 아우라

회의 문화와 역사, 전통으로부터 아우라가 생성되므로, 동일한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회나 시대에 따라 아우라의 성격은 다양해진다.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소속 사회의 형식과 가치관에 따라 그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느냐에 따라 예술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아우라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의 본질이다. 본래 예술 작품은 미술이나 제사와 같은 초월적인 가치나 신에 대한 봉사와 같은 종교적 숭배 가치를 담는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공개적으

로 전시되기보다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는 평범한 소시민은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예술 작품의 권위, 즉 아우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진품을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작업이 가능해진 현대에는 이러한 아우라의 붕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영화나 사진의 경우 어떤 것이 원본이고 진품인지 가리기 어려워졌다. 또 여러 장소에 걸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수없이 반복해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일성, 일회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아우라의 붕괴는 곧 전통 예술의 종말을 의미한다.

기술 복제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예술은 예전과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특권층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에 따라 예술 작품의 향유도가 높아지고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예술 작품이 가지는 권위가 파괴됨으로써 예술 작품의 비판적인 수용 또한 가능해졌다.

반면 수많은 복제품과 모조품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진품에 녹아 있는 작품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예술 작품에 담긴 작자의 예술성과 그것을 감상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간다움의 고양(高揚)을 상실케 하는 우려를 낳는다.

기술문제로 재정리하기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짜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모조품 소비 현상이 심각한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제시문을 고려하여 모조품 소비 현상의 문화적 함의를 논하시오. <성균관대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2번 문항 발췌 편집>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짜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레고 아날로그 시대는 원형과 복제의 차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복사기로 책을 복사하다 보면 그대로 복사본과 원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잡은 사진은 원본과 복사본에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일찍이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저서 속에서 Walter Benjamin(W. Benjamin, 1892~1940)은 예술 작품이 바로 그 일회성(一回性)으로 인해 공간과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 안에 있는' '유일무이한 '술결(Aura)'이 깃든 것이 예술 작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기술 복제 시대에 이르러 '어디에서 그리고 지금' 수위는 진정성의 의미는 계속 퇴색되어 갔으며 아무 곳에서나 또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복제는 그저 '흔적(Spur)'만을 남길 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러한 '흔적'은 '술결'과는 반대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가까이 있는 환형(幻影)'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렇다면, '짜퐁의 시대'에는 살아 있는 '술결' 대신에 죽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아 숨쉬는 '원형'에 대한 갈증이나 갈망은 사라지고 떠나 할 것 없이 진처럼 보이는 '짜퐁'으로 요란스럽게 음모를 휘감고 잊지는 않겠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인간의 원형과 그의 술결마저도 사라지는 그러한 황량한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한 번 돌아볼 때가 때다.

-송두울, '짜퐁시대에 생각하는 것들'(서울신문 2005. 12. 7)

※ 모조품과 진품의 차이를 이해한 후, 모조품 소비 현상이 문화적 측면에서 갖는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

<p>대인동삼일부동산</p> <p>☎ (☎)223-1140, 1140, 1140, 1140-2532 (동주영, 신봉원, 대인동, 신봉원, 신봉원)</p> <p>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p> <p>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일의 실 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p> <p>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p> <p>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p>	<p>LCE타워(주)</p> <p>☎ (☎)972-8004, 010-7154-6986</p> <p>첨단지구 LCE타워</p> <p>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p> <p>★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유명메이커 입주</p> <p>■ 각종 학원 임대 50~200평</p> <p>■ 병의원 임대 50~250평</p> <p>■ 라이브홀, 스카이라운지 120~230평</p> <p>■ 사무실 임대 27~400평</p> <p>사업 인동자 구함</p> <p>좋은 업종이 있어도 초기 자금(부담되는 임대료)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전화 주십시오!</p> <p>부동산 교환 환영</p> <p>상가와 어떤 부동산 이든 교환 환영</p> <p>- 중개업자 중개 환영 -</p>	<p>일가공인중개사</p> <p>☎ (☎)224-8216, 011-698-8986 (동주영, 신봉원)</p> <p>상가건물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랑구 대치 75평 5000만원 27/1700만 21억 1000만 (전세 2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대치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p>토지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p>전원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p>기타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영등포구 신대방 75평 1500만원 1500만 1억 5000만 (전세 1억 2000만) 	<p>한일지도판매(주)</p> <p>☎ (☎)529-1408, 010-2466-1408 (지사영업팀, 김민정)</p> <p>2007 최신중주지도 책 판매개시!!</p> <p>타사제품 기가umen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P 반원형 APT임대, 창문apt가 신 도 브레이크로 바뀌지 않았음. 13P 첨단 2차주주공APT 배치도 2개 있음 14P 천성간마을, 하일마을, 2차 해 지 변경 20P 수영구 상업지역 변경 28P 보경지구에서 신기리로 나가는 계획성 사업인데 내외 있음 38P 신원지구 비문단지 다 바뀌었음. 타사로 뒤임 40P 대우 피오어 APT 배치도 안 나왔음 42P 마라도 빌라 안 나왔음 49P 회기문대 김치타운으로 연결된 계획성 없음 50P 호반베르디움APT 2차 안 나왔음 51P 중상사 이주단지 배치도 없음 56P 김치타운 위로 동명동으로 연결된 계획성 없음 56P 호반1단지 1차, 2차 주공APT임대 57P 호반2단지 3차, 4차 APT 배치도 없음 57P 진원 택지개발지구 택지지역 안 나왔음 57P 진원 택지 주공APT 배치도 6-7 차 배치도 안 나왔음 61P 한일 apt인데 구 밧고문 APT로 나왔음 <p>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잘 판단하여 선택하십시오!</p> <p>문의전화 ☎ (062)527-6310 ☎ 011-9433-6310</p>	<p>효성공인중개사</p> <p>☎ (☎)521-6024, 011-602-4207 (동성지구 하이마트점, 김민정)</p> <p>대지매매(교회, 원·투룸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진구 수원동 자연녹지 1,000평, 500평 3면도로점 평당 135만 교회, 원·투룸부지, 물류창고, 사무나, 투주직할 <p>물류창고, 공장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진구 수원동 자연녹지 1,300평 3면도로점 대형창량 전진기 부지 평당 98만원 하남공단내 2차선도로변 코너 대지 1500평 건평 800평 평당 7130만원 물류창고 허가됨 <p>실바타운, 노인병원 건축물 하차장 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 칠산면 2차선 국도변 대지 11,000평 평당 16만원(투주직할) <p>상가 및 사무부지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암동아파트 대단지 입주코너 대지 622평 평당 7,150만원 신원동 6차선 대로변 610평 평당 7280만원(사무 및 물류창고 적합) <p>상가건물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진구 운남동 대 390평 건 1,400평 지하 1, 지상층 4500세 대 아파트 중심상가 부 24억 월 3,200만 매매 <p>사무나 건물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대지 400평 건평 1,200평 매 40억 대구모 아파트 단지 입주코너 최고요지 지하 1층 지상층 사무나·헬스 클럽, 기타 1층 임대 보증금 1억5천 1,200만원, 성향열 운영 중 	<p>알파공인중개사</p> <p>☎ (☎)974-0229, 011-602-8937 (광주첨단지, 국민은행건물 2층)</p> <p>상업용 건물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가: 80억 월 12억, 보 36억 월세 3,000만원(최고상권) 매가: 30억 월 9억, 보 4억 월세 1,700만원(첨단지) 매가: 21억 월 6.5억, 보 5억 월세 1,000만원(상상동) 매가: 4억 월 3억 6천 원 현재 신기술로 신축건물 현재 공실임, 식당, 사무실 적합 <p>토지 매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진구 운남동 250평 × 200만 원 (2,800세대 APT인원, 상가점포용) 광진구 운남동 3중주거지역 1400평 × 300만원 (60m 도로로, 근생용) 첨단 상업용지 4200평 × 450만원 (오교스빌부지 적합, 기타) 첨단 상업용지 1000평 × 350만원 (근생용도 적합) 송림동 2중주거지 32평 × 220만원 황벽4차선 도로변, 1천세대 아파트 (카센터, 근생용으로 적합) 북구 용정동 5820평 × 18만원 (투주용, 금) 안동로 신지면 권리지(전 1,100평 × 25만원 (법사실리 인수목적부, 편선단지) <p>★매매/임대 접수합니다.★</p>	<p>21세기부동산컨설팅(주)</p> <p>부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 (☎) 525-0021, 친철상담 011-612-3421</p> <p>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p> <p>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 1차선 199평 건물매매 2. 법원 2차선 199평 건물매매 3. 법원 3차선 199평 건물매매 <p>AAA급 깨끗한 건물 건물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동 롯데백화점내 도로변 대지 60평 2층건물 매 2950원 (은행대출 2억 1천 000원) 2. 경안로 4거리 주유소 옆 건물 5층 대지 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무실 사용용도 적합, 동량지구 개발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매 1억 5천 500만원 3. 북동 롯데백화점내 도로변 대지 60평 2층건물 매 2950원 (은행대출 2억 1천 000원) <p>감정가 50% 공시지가 150% 이하로 건 건물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복로 코미백화점 2층 450평 건평 18억 매 2억 6천 2. 신원동 5층건물 건평 27억 매 15억 부동산 교환 가능 <p>현금투자 최요지 건물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원동→상가리 1번 한남로 도로변 대지 1000평 전사시설·공원·청교·건물 신축부지 통밀지구 아파트단지 건너편 매 1억 2000만원 2. 광진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건평 4500만원 3. 신원동사거리 도로변 대지 250평, 건평 500평 건평 3000, 감 2억 2천 500만원 매 15억, 전사시설, 청교, 공원, 사무실, 병원, 용도 적합 <p>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극장식 웨딩홀) 만족도!! (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 업체 선정!!</p> <p>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p> <p>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p> <p>결혼, 회갑연, 칠수연, 돌잔치, 동갑연, 각종 행사를 호텔웨딩홀에서</p> <p>☎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p> <p>*9,10,11월 가을예식 예약접수중*</p>
--	--	---	---	--	--	--